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대림 제3주일, 자선 주일
2021. 12. 12. (다해) 제2298호

겨울주보



블로성당 |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제1독서 스바 3,14-18 **화답송** ◎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제2독서** 필리 4,4-7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알렐루야. **복음** 루카 3,10-18 **영성체송**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우리의 온도



국우본당 주임 | 성진우 아벨리나리스 신부

온도라는 것은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를 기준을 정해 수치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이는 셀시우스라는 서양의 천문학자가 만들어 놓은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물이 끓는 온도는 100°C(celsius)라고 하고 얼음이 어는 온도를 0°C라고 합니다. 수많은 온도들이 존재하는데, 우주의 온도는 마이너스 270°C, 태양의 온도는 6000°C, 지구의 평균온도는 14.5°C, 인간의 온도는 36.5°C입니다. 또 신맛의 온도는 27°C, 매운맛은 60°C, 짠맛은 37°C, 아이스크림은 영하 14°C, 스테이크는 69°C, 커피는 70°C에서 가장 맛이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온도계로만 잴 수 있는 온도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온도계로 측정 불가능한 온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긴 밤 내내 열 오른 아이의 이마를 짚어주던 어머니 손의 온도, 몇 번을 망설이다 처음으로 수줍게 잡았던 사랑하는 사람의 온도, 10시간이 넘는 진통 끝에 가슴에 안은 내 아이의 온도, 임종의 순간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느낀 부모님 손의 온도, 기쁜 일에 웃고 슬픈 일에 울 때 볼을 적시며 흐르던 눈물의 온도 등 숫자로 표시될 수 없는 온도들이 있습니다.

대림 제3주일을 맞으면서 성큼 다가온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며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2021년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얼마나 우리 인생에 걸맞은 온도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얼마나 뜨겁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뜨겁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뜨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가족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대림 제3주일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뜨거웠던가를 돌아보는 '자선 주일'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마태 11,7)'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너희는 무엇을 보러 성당에 나갔더냐?'라는 말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당신 사랑의 실천을 위해 이 땅에 강생하신 예수님을 보러 옵니다. 연약하고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희생해 우리를 구원할 사랑의 왕의 모습을 보러 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습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도현 시인이 쓴 '연탄재'라는 시가 생각납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지나온 한 해에서 우리 인생의 온도는 몇 도였습니까? 안도현 시인의 말처럼 우리의 삶이 뜨거운 삶이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빛나**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 12,24)

교구 사회복지국장 · 밀알회장 | 최광경 비오 신부

최근 밀알회로 연락해 주신 두 남자 어르신의 전화 내용입니다. 두 분 모두 울먹이듯 아쉬워하셨고 심지어 한 분은 수화기에 대고 한참을 흐느끼셨습니다.

“평생 단지 장사를 하면서 40년 넘게 밀알회에 작게나마 후원해왔는데 이제는 정말 그만해야 할 것 같아. 나이도 80이 넘어 너무 힘들어서 할 수가 없어. ...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장사도 못해서 ... 아쉬워서 어찌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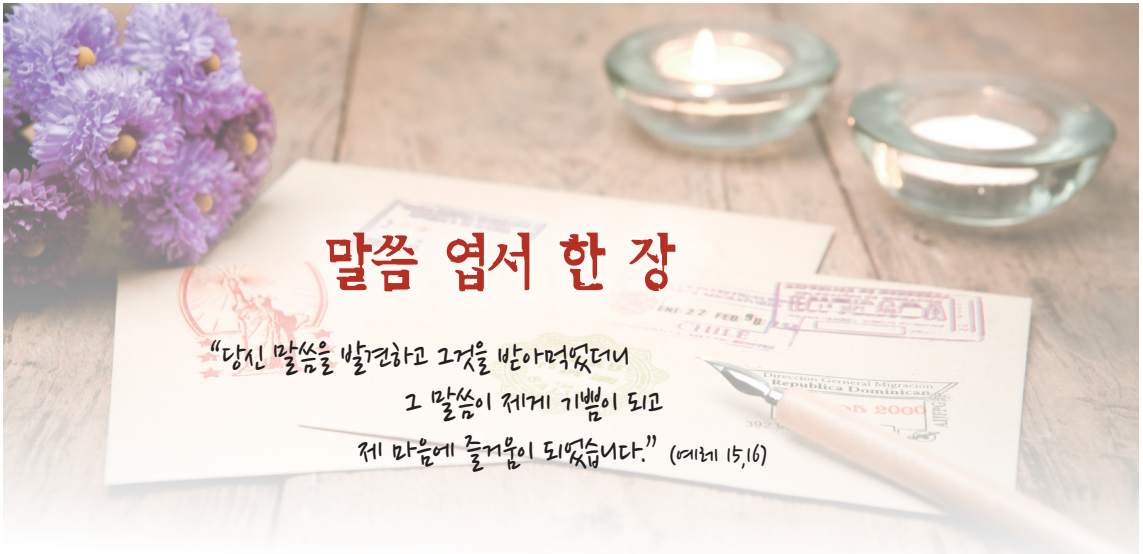
“아내가 두 달 전 세상을 떠났어요. 통장을 정리하다 보니 밀알회에 그 오랜 시간 동안 3천 원씩 후원해왔더군요. 그냥 해지하려다가 내가 남은 생애까지는 계속 후원하렵니다. 반드시 이름은 아내 이름을 그대로 유지해 주세요. 절대로 이름 바꾸시면 안 됩니다.”

밀알회는 故 김동한 신부님(故 김수환 추기경님의 형님)께서 대구결핵요양원의 극빈 결핵환자들을 돕기 위해 1977년에 창립하신 후원단체로서, 40여 년의 긴 시간에 이르러 현재는 천주교 대구대교구 사회복지회 공식 후원단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밀알회는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 처해있습니다. 초창기부터 후원해오신 많은 후원자분들께서 사망하시거나 고령으로 생업을 중단하시면서 후원의 손길이 끊어지기 시작하였고, 본당으로 직접 찾아가는 밀알회 홍보활동이 중단된 2015년경부터는 밀알회 신규후원자 수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가난한 이들은 더욱더 큰 어려움과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교구 소속 10개의 사회복지법인과 100여 개의 카리타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제도권에서 미처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이들을 돌보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하는 이 모든 노력의 바탕에는 신자 한 분 한 분이 ‘꾸준히 조금씩’ 나눠주시는 정성과 사랑, 그리고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려, 보다 많은 교우분들께서 밀알회를 통해 교구 사회복지사업에 함께해 주신다면, 우리 교구는 어둠 가운데서 더욱더 빛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금액을 한 번에 후원하기보다는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함께해 주신다면, 가난한 과부의 예를 칭찬하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고귀하고 아름다운 이웃사랑 실천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지금도 함께해 주시는 국내외 밀알회원 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려서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함께해 주실 남녀노소 모든 신자분들께도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필문**



밀알회 후원계좌 : 대구은행 069-10-000445, 예금주: (재)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문의: 053)422-3411(내선1) ※ 첫 후원시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성본당 | 김광현 시몬

하느님을 아버지라 불리운 지도 사십삼 년이 흘렀습니다. 주님의 날에는 미사 한번 결한적 없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기도드리고 믿음으로써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들이닥친 코로나19로 인해 미사에 참례하지 못하고 집에서 기도하며 묵상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는 위험하다는 뉴스에 겁쟁이 시몬은 대문을 닫아걸고 방 안에만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가야 하는 병원 출입은 사위에게 부탁했고, 며느리는 양식까지 택배로 보내왔습니다. 딱 한 번 마스크 몇 장을 사러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약국에 간 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혹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외출은 더더욱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에 무언가를 해보기로 생각했습니다. 글씨체는 못났어도 사랑과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기에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장씩 한 장씩 써 내려갔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적힌 엮서, 지금은 백여 장이 파일 속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사 참례는 하지 못해도 오랜만에 만나는 교우들에게 주먹 인사를 나누고 작은 엮서 한 장을 건네줄 때 마스크 위로 반짝이는 눈빛이 정말 숨사탕처럼 달콤했습니다. 신앙인들은 말씀을 통해 하느님을 만나고, 비록 교우가 아니더라도 하느님의 말씀을 적은 엮서 한 장 건넬 땐 “고맙습니다.”라는 한 마디에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기억 속에 심었더니 그것이 씨가 되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하느님께서 제게 주신 사랑의 편지, 오늘도 내일도 읽고 쓰면서 전하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위로와 평화를 주시는 하느님. 당신의 부르심에 대한 저의 응답은 이 한 마디뿐입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6,68) 

한국 순교복자 124위 약전

‘양박’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던 최해성(崔海成) 요한은 1839년에 순교한 성 최경환 프란치스코의 먼 친척이다. 그의 집안은 본래 충청도 홍주 다락골(현 충남 청양군 화성면 농암리)에서 살았는데, 1801년의 신유박해 때 그의 조부가 체포되어 유배를 가게 되자 온 가족이 그 지방으로 가서 생활하였다. 그가 태어나 자란 곳도 이곳이다.

어려서부터 교리를 배우면서 성장한 요한은 성격이 온순하고 정직하였다. 이후 그는 좀 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가족들과 함께 강원도 원주의 서지(현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손곡 2리)로 이주하였고, 이곳에 작은 교우촌을 이루었다.

요한은 천주교의 모든 본분을 이행하는 데 뛰어난 열성을 보였으며, 자신보다 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애공을 잊지 않았다. 서지 교우촌에 선교사가 와서 성사를 베풀 때면, 요한은 말할 수 없는 열심에 불탔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이러한 덕행 때문에 그는 그 마을의 회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견진성사를 받은 후에는 성령 칠은의 특은을 충만히 받은 징표가 나타났으며, 이내 그의 마음은 순교 원의로 가득 차게 되었다.

1839년의 기해박해가 일어나자, 최해성 요한은 우선 부모와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다. 그리고 교회 서적을 가져오기 위해 다시 집으로 갔다가 체포되고 말았다.

원주 관장 앞으로 끌려간 요한은 다시 문초와 형벌을 받으면서도 “형제들을 고발할 수 없다.”라고 용감하게 대답하였다. 관장은 여러 가지 말로 유혹하면서 배교를 권유하자, 그는 이를 거부하면서 “원주 고을을 다 주신다고 해도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우리 천주를 배반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어느 날 그는 다시 관장 앞으로 끌려나가 문초를 받게 되자, 이렇게 대답하였다.

“제가 지금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한다면, 제 영혼은 영원히 죽을 것이므로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임금과 의(義)를 위해 죽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배반하는 백성이 있다면, 그는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위대한 하느님을 섬기겠다고 맹세한 제가 어찌 형벌을 두려워하여 이를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관장은 화가 나서 그에게 혹독한 형벌을 가하도록 하였다. 요한의 몸은 다시 피투성이가 되었고, 살은 갈기갈기 찢어졌지만, 하느님의 사랑으로 불붙은 그의 영혼은 기쁨으로 용약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마침내 참수형을 받아 순교하였으니, 이때가 1839년 9월 6일(음력 7월 29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28세였다.



최해성 요한
(1811 ~ 1839년)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말씀과 함께하는 대림 콘서트 Advent Concert

12. 18(토) 오후 5시 / 주교좌 범어대성당 대성전

지휘 | Johan Rooze · 김연지 출연 | 아마레 · 보누스 성가대,
가톨릭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현악 앙상블 · 오보이스트 주최 ·
주관 | 주교좌 범어대성당 문의 | (053)790-1300 전석 초대

황금템페라展 - 하느님 말씀을 따라

일시: 12.17(금)~30(목) 장소: 교구청 내 교육원 다동1층 갤러리1981

참여작가: 대구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황금배경템페라반



37. 혼인의 사랑 ⑥

사랑은 다른 이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는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의 행복에 기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에만 집중한다면 기쁨이 없는 삶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가정은 언제나 가족 가운데에 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은 나머지 가족들이 그를 위해 축하해 주리라 여기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줍니다. “모든 것을 덮어 준다.”는 것은 단순히 악을 참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가 잘못을 하였더라도 ... 판단을 자제하고 완고하고 지나치게 심판하려는 경향을 억제한다는 뜻입니다. 곧 배우자의 문제나 약점을 더 큰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상대방의 사랑의 진가를 알려면 그 사랑이 완벽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완전함을 지니고 용서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사랑의 기쁨』, 109~11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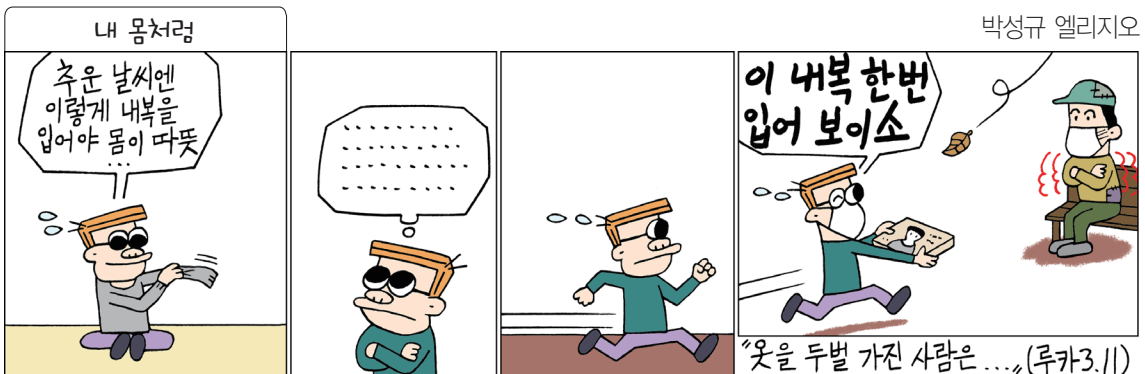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불필요한 물건 구입(택배) 줄이고 쓰지 않는 물건이나 옷 나누기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말씀의 해 안내지 48호 정답

1. 말을 옮기지 마라, 죽을 때까지 묻어 두어라 2. 1, 제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4, 제 생명의 하느님 이신 아버지 3. ① 4. 계약의 글, 상속 재산, 율법



미사 안내

2대리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2월 13일(월) 10:30 범여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12월 14일(화) 11:30 계산성당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2월 13일(월) 11:00 계산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2월 16일(목) 10:00 평화성당
경주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12월 13일(월) 11:00 황성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2월 18일(토) 11:00 월성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2월 13일(월) 11:00 봉곡성당	미باه 월례미사	12월 18일(토) 11:00 성모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2월 13일(월) 11:00 죽도성당	한티순교자 현양후원회 월례미사	12월 18일(토) 11:00 한티피정의진

성소 | 피정

천주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12.18(토) 14:00

장소: 개화동 수도원(서울)

문의: (010)3800-1579

살레시오수도회 성소 상담

대상: 고3, 일반 35세이하 미혼 남성

문의: 심재현 신부, (010)2042-8353

교육 | 모집 | 기타

가톨릭 요셉발건강회(발은 제2의 심장)

일시: 매주 토 14:00~16:00

장소: 가톨릭문화관(교대역 3번 출구)

문의: 476-7774 / www.footfather.com

남대영기념관 예성상담센터

심리적 갈등과 대인관계의 어려움 극복

심리평가(성격강점 외) 및 상담

통합놀이치료(모래놀이, 미술치료)

문의: 허리나 수녀, 657-1295

티없으신마리아성심 재속3회 지원자 모집

대상: 봉헌의 삶을 살고자 하는

55세 이하 신자

문의: (010)8503-0228(수녀회)

(010)8546-8696(대구지부 회장)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대상: 평신도, 수도자

마감: 2.9(수)

문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훈련생 모집

대상: 만 15세 이상 남자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기간: 3~12월 / 문의: (02)828-3600

혜택: 교육비, 기숙사무료, 수당지급

최근 5년 평균취업률 87.5%

원어로 읽는 성경 기초(히브리어, 희랍어)

기간: 1~12월(1년 과정, zoom 수업,

3개월에 30만원)

시간: 수요일 저녁 7:30~9:30

문의: 프란치스코회 김성태 신부,

(010)4598-6912

칠곡가톨릭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에

서 6대 암 검진 및 일반검진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 문의: 320-2061

http://www.tcmccch.co.kr

전인병원 건강보험검진

위·대장내시경 검사에서 결과까지

당일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670-5959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 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성심복지의원 무료병원 진료 안내

과목: 치과(무료틀니), 한방, 내과,

정형외과, 피부과, 신경과

대상: 수급자 65세 이하(치과), 노인,

노숙자, 이주노동자, 한부모세대 등

문의: 256-9494

효령하늘집 안내

주님 님은 내가 되는 여정. 그것은

치유를 통한 구원의 길입니다. 지금

이 그때입니다. 초대합니다. 당신을.

문의: (054)382-0091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 010-3530-7700
010-3817-0111

양호진 요셉, 장효선 데보라

백합식품

살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100% 국산콩으로 만드는 우리의 장맛

백합 매주,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대추즙

백합식품 본사 053)857-2037
서울 02)2202-8392
대구 053)257-1771

남창·이명은

밝은귀보정기 & 청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과 석사/청능사
최준우 (미카엘)

봉덕점 · 서문시장점 010-6481-8848

38년 전통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틸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54 (2층)
T. 053-743-4488
M. 010-3530-7467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상운(안젤로)
송정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이영국 비뇨기과

전립선 | 방광질환 유로결석 (쇄석술)

비뇨기과 전문의/원장 이영국(안드레아)

T 053-629-0077
감삼역3번 출구 감삼스퀘어 6층

이원 의료기

혈압계·혈당계·당뇨소모성재료
휠체어·주사기·보호대·틀·부항기
주열기·체온계·욕창매트·환자용품
안마기·실버카·산소치료기·찜질기

변상범(도미니코), 김인숙(아나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053)256-2512(대표), 2513

Since 1963

가톨릭피부과의원

Catholic Dermatology Clinic

58년 역사와 전통의 피부질환 전문병원
신속검진 이진 및 레이저 전문 진료과정 초빙!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15길 28
대표전화 ☎ 053) 320-2000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정춘석(아우구스티노) 신부
2003년 12월 13일
- 최덕홍(요한) 주교
1954년 12월 14일

행사 | 모임

2022년 1월 카나혼인강좌

일시: 1.16(일) 10:00~13:30(시간엄수)
장소: 추후 신청자 개별 연락
참가비: 2인 3만원(사전 신청) 무료주차
신청: 본당 사무실 / 마감: 1.6(목)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동계 사제 성소 피정

고1: 1.12(수), 교구청 성소국
고2: 1.13(목), 교구청 성소국
고3-대학·일반: 1.19(수)~21(금),
한티 피정의 집
(참가 학년은 2022학년도 기준)

군중후원회 창립50주년 감사음악회

일시: 12.29(수) 19:00
장소: 주교좌 범어대성당 드망즈홀
출연진: 사제밴드(대일),
바리톤 제상철 외 다수
문의: 256-0815

교육 | 모집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화상영어
수강생 모집

대상: 7세~성인 및 실버 세대
수업: 일대일 맞춤형, 기초회화,
여행 및 비즈니스영어
문의: 593-1273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안내

난타, 고전무용, 장구, 제대꽃꽂이,
사범꽃꽂이, 연필초상화, 캘리그래피,
정리수납전문가, 성물도예, 섬유공예,
오카리나, 우쿨렐레, 발성법, 문인화,
성가반주오르간 / 신청: 254-6115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분야: 진료안내, 공급실, 기타
대상: 만65세 이하 건강한 남녀
비신자 포함
담당: 류요한 신부
문의: 650-4442 / (010)6565-6672

바오로딸 성경학교 학생 모집

마감: 1.31(월)
과정: 입문, 중급, 성바오로영성
방법: 우편과 이러닝(동영상) 성경공부
문의: (02)944-0819~24
<http://uus.pauline.or.kr>

채용 | 안내

청년청소년국 직원 채용

업무: 학교복음화 및 청년사목관련
업무, 영상 및 포토샵 가능한자
마감: 12.20(월)
접수: 방문 · 우편 / 문의: 250-3069

교구청 경비 직원 채용

자격: 만 55세이상, 신체 건강한 신자
서류: 자필이력서, 자소서, 교적증명서
마감: 12.21(화) 15:00
제출: 교구청 관리과, 250-3031

다사성당 사무장 채용

자격: PC(엑셀)가능,
신앙생활에 충실한 자
서류: 이력서, 자소서, 교적증명서
마감: 12.31(금)
문의: 587-7300

복자성당 사무장 채용

자격: PC(엑셀)가능,
신앙생활에 충실한 자
서류: 이력서, 자소서, 교적증명서
마감: 12.25(토)
문의: 745-3850

죽전성당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채용

문의: (010)3131-0170

성모솔숲마을 직원 채용

업무: 피정의 집 청소, 환경관리
장소: 성모솔숲마을(자차 이용 가능자)
문의: (054)373-3955 / (010)2573-6204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허현진(안나), 전은희(세실리아)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 전문
경대병원 응급실 건너편
T. (053)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코), 박필교(올리안나)
배대욱(임마누엘)
☎ (053)255-9077
010-9447-5193

곽재혁신경과
SHAWNEE CLINIC OF NEUROLOGY
두통 / 어지럼증 / 손발저림
치매 / 자율신경질환 / 수면장애
파킨슨 / 뇌졸중 / 도수치료
원장 | 신경과 전문의
곽재혁(발렌티노) 053-255-2211
前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조교수
신남역(청라연덕역) 9번 출구 적탑병원 4층

25년 전통
천주교 결혼정보회사
거들 짝
초혼, 재혼, 노블레스
전국 대표전화 1566-6205
wedmate.co.kr

이시아요양병원
대구시 동구 파계로6길 16(지묘동)
(파군재 삼거리 좌회전 100m)
(053)983-7700
병원장 이 동 구 (마티아)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24시간 요로검역
비엔 비뇨의학과
비뇨과
대표원장 | 전문의 이 운 형 (요셉)
삼정브리타시 건너편 올리브영 3F
Tel. 053 552 2525

바른동물의료센터
▶ 365일 24시간 진료
▶ 대학병원 석/박사 원장 진료
▶ 동물병원내 CT 장비 도입
▶ 주차 10대이상 완비
▶ 유튜브 '개일남' 채널 운영
특별진료
-정형외과
-심장내과
-건강검진
-고양이특화
-야간응급
대구광역시 달서구 삼성동 280-5 (이마트 옆) 김성철 원장님
대표원장 이세원(루카) 053-571-0075